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

구상미¹, 오은영^{2*}

¹유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가톨릭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on Sexual Assertiveness : Mediating Effect of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Sang-Mee Koo¹, Eun-Young Oh^{2*}

¹Professor, Dept. of Nursing, U1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Nursing, Catholic Kkotongna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충북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정하운(2013)의 데이트폭력 인식, 정진아(2016)의 성적 자기주장, 남현미(2003)의 폭력허용도의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데이트폭력 인식과 폭력 허용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43, p<.001$), 폭력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0, p<.05$). 둘째,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43, p<.001$),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F=36.10, p<.001$). 셋째,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효과의 감소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2.05, p<.05$)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매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여대생의 폭력허용도를 낮추고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성적 자기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주제어 : 여성, 학생, 인식, 데이트폭력, 자기주장, 허용도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in the influe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on their sexual self-asser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1 female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in the Chungbuk region. As research instrument, Jeong(2013)'s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Jeong(2016)'s sexual self-assertiveness, and Nam(2003)'s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requency, percentage,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were perform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nd violence tolerance($r=.43, p<.001$), a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violence tolerance and sexual assertiveness($r=-.20, p<.05$). Second, the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xual assertiveness($\beta=.43,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19%($F=36.10, p<.001$). Third, it was found that the decrease in the e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on sexual assertiveness was significant($Z=2.05, p<.05$), violence acceptability showed a medi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dating violence perception on sexual assertiveness. Based o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o develop a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that can lower female college students' acceptability for violence, raise perception of violence, and strengthen sexual assertiveness.

Key Words : Female, Students, Percepti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ssertiveness, Acceptability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Oh(oe0443@hanmail.net)

Received November 3, 2021

Revised November 28,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1. 서론

대학생은 새로운 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시기로 특히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과 데이트 관계를 자유롭게 시작하고 유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데이트 관계라 하면 흔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측면을 많이 상상하지만, 상호 의존도가 높고 상호작용 빈도가 많아 상대방의 기대하는 모습에서 불일치와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더 많으며, 이러한 갈등이 부정적이고 폭력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1].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폭력, 사이버 폭력 등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2], 최근에는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함에 따라 폭력 사실 자체가 은폐되는 특징을 보여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2016~2017년 국내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77.5%가 여성으로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3]. 2020년 범죄백서의 보고를 통해서도 지난 10년간 강력범죄의 폭력 피해자 중 여성피해자 비율이 2011년 30.1% 수준에서 2019년에는 39.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데이트폭력은 다양한 문화와 연령대에서 일어날 수 있으나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 되고 있는 시기를 대학생 시기로 보고되고 있고[5,6] 대학 시기에 데이트폭력 경험은 이후의 결혼생활 및 사회생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학생의 안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집중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알아보는 작업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 등의 대처 전략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 관련 요인은 개인적 요인, 가정 환경적 변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해소를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양상을 보인다[3].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피해의 관련 요인으로 과거 가정이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성역할 고정관념, 폭력 허용도 등이 있으며, 데이트폭력 가해와 피해의 공통적인 원인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정도, 폭력에 대한 높은 허용도를 들 수 있다[7-9].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3]. 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성장한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쉽게 행사하고,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폭력이 되풀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등[10] 폭력에 대한 인식이 폭력을 예측하는 변수임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7-9].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계에서 여성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매우 수동적이고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여 성병에 걸리거나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이는 자신의 상태나 상황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여 관계에서 주도나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주저함을 의미한다. 타인의 성 욕구나 의도가 아닌 성접촉에 대한 자신만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성 욕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성적 자기주장이라고 한다[11].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적 자기주장은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데이트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고, 성적 자기주장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9,12]. 그동안 대학생 대상 데이트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데이트폭력 인식이 폭력 행동에 미치는 영향[7],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9-12]가 주를 이루었으나,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의 공통 원인이 되는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진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상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데이트 폭력 허용도의 매개 효과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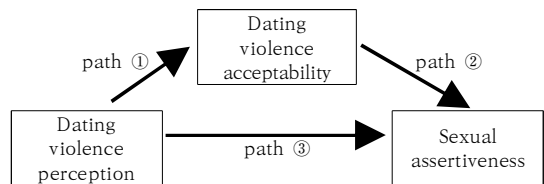


Fig. 1. Mediating model(Baron & Kenny, 1986)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대생 데이트폭력 인식, 데이트폭력 허용도 및 성적 자기주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 및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어떠한 매개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 참여대상은 대한민국의 충북에 위치한 일개 U대학의 인문사회계열 2개 학과, 보건계열 2개 학과의 여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면으로 동의한 자, 자가보고형 설문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여 답하는 것이 가능한 자들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수는 G 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효과 크기는 최숙희[13]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간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 독립변수 18개로 설정하여 계산하였고 필요한 표본수는 150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80명으로 정하였다.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회수하였으나 무성의한 응답이나 무응답이 확인된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최종 분석에 이용된 총 대상자 수는 161명(93.2%)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연구 도구

2.2.1 데이트폭력 인식

데이트폭력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정하운[1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 5점 Likert 척도로서 하위요인은 정서적 폭력에 대한 인식(8문항), 언어적 폭력에 대한 인식(9문항),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4문항),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식(7문항),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35-1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하운[13]의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타당도는 평균 0.95점으로 높은 타당도를 보였으며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7

이었으며 하위요인은 각각 .89, .70, .86, .69, .84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4(33.0)	
	Health Sciences	107(67.0)	
Age			21.13±1.40
Grade	1	94(58.0)	
	2	2(1.1)	
	3	64(40.9)	
	0	12(7.5)	
Number of friends of the opposite sex so far	1-3	76(47.2)	
	4-6	51(31.7)	
	7-9	16(9.9)	
	Over 10	6(3.7)	
			3.77±2.45
Current heterosexual relationship	Yes	82(50.9)	
	No	79(49.1)	
First sexual experience age			20.27±0.78
Dating violence victim experience	Yes	2(1.2)	
	No	159(98.8)	
Dating violence abuse experience	Yes	8(5.0)	
	No	153(95.0)	

2.2.2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아[15]의 대학생용 성적 자기주장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 4점 Likert 척도로서 하위요인은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8문항), 성행동 인식(4문항), 성욕구 인정·표현(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성접촉 상황에 대한 거절 및 예방 행동 중심으로 하위요인을 설정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적 자기주장 능력은 실질적으로 성 접촉 상황에서의 거절과 주장의 의사 표현, 성 태도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에 대한 수용적 태도 등을 강조하여 기존의 척도와 다른 맥락적 특징이 있다. '원치 않는 성 행동 거부'는 성 접촉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고, 원치 않는 성적 요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 행동 인식'은 성적 행동에 대한 인식과 고정관념 정도를 측정하며,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 욕구 수용·표현'은 자신의 성적 욕구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며, 성적 욕구를 표현하고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

어져 있다. 정진아[14]의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성적 자율성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공인타당도를 검증 확인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71~.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3이며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성행동 인식, 성욕구 인정·표현에 대한 Cronbach's α 는 각각 .90, .85, .77 이었다.

2.2.3 폭력 허용도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남현미[1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Foo와 Margolin[17]의 폭력 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에서 의미가 모호한 것을 수정하고 완결된 문장으로 구성하여 독자가 설문에 응답하기 쉽게 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8문항, 4점 Likert 척도로서, '나에게 해어지겠다고 위협한다면 폭력(신체적/언어적/성적인 것 중 한 가지라도)을 사용해도 정당하다' 등의 8가지 상황에 대하여 남자 친구 또는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닌지를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8-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허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남현미[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집되었다. 본 연구자가 U대학의 4개 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신체적 위협이나 예측되는 부작용이 없음을 설명한 후 구두 설명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 내용 중 사적인 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신상 보호와 비밀유지가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사실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 성실한 답변이 유도될 수 있도록 봉인된 봉투에 담아 배부와 회수를 진행하였다. 총 18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율은 93.2%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이 완료된 후 모두 폐기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여대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매개로 하여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제안에 따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Sobel test를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 데이트폭력 허용도 및 성적 자기주장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ating Violence Perception, Violence Acceptability, and Sexual Assertiveness (N=161)

Division	Range	M	S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1-5	3.53	0.81
	Verbal violence	1-5	4.11	0.80
	Sexual Violence	1-5	4.35	0.77
	Physical Violence	1-5	4.53	0.56
	Cyber Violence	1-5	4.25	0.59
Total	1-5	4.12	0.54	
Sexual Assertiveness	Refusal of unwanted sexual behavior	1-4	3.38	0.44
	Sexual behavior perception	1-4	3.37	0.66
	Expression of sexual desire	1-4	2.95	0.56
Total	1-4	3.29	0.35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Total	1-4	1.86	0.71

3.2 데이트폭력 인식, 폭력허용도 및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3.2.1 데이트폭력 인식과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성적 자기주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3, p<.001$). 데이트

폭력 인식과 성적 자기주장의 하위영역 중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r=.39, p<.001$), 성행동 인식($r=.28, p<.001$)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욕구 인정 표현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ubject's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nd sexual assertiveness (N=161)

Division	Sexual Assertiveness				
	RUSB	SBP	ESB	Total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33***	.23**	.13	.38***
	Verbal violence	.29***	.24**	.09	.35***
	Sexual Violence	.28***	.24**	.05	.33***
	Physical Violence	.32***	.25**	.04	.35***
	Cyber Violence	.38***	.22**	.02	.37***
Total	.39***	.28***	.09	.43***	

* $p<.05$, ** $p<.01$, *** $p<.001$
 RUSB=Refusal of unwanted sexual behavior; SBP=Sexual behavior perception ; ESB=Expression of sexual desire

3.2.2 폭력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

여대생의 폭력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대생의 폭력허용도와 전체 성적 자기주장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20, p<.05$),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r=-.25, p<.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성행동 인식 및 성욕구 인정표현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acceptability and sexual assertiveness (N=161)

Division	Sexual Assertiveness			Total
	Refusal of unwanted sexual behavior	Sexual behavior perception	Expression of sexual desire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25**	-.02	-.02	-.20*

* $p<.05$, ** $p<.01$

3.3 데이트폭력 인식, 폭력허용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3.3.1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이 전체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3, p<.001$),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F=36.10, p<.001$).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은 15%의 설명력으로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beta=.39, p<.001$)에, 8%의 설명력으로 성행동 거부($\beta=.28,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Dating Violence Perception on Sexual Assertiveness (N=161)

Dependent	Independent	B	SE	β	t	R ²	F
RUSB	(cont)	16.16	2.08				
	PDV	.08	.01	.39	5.26***	.15	27.62***
SBP	(cont)	8.90	1.36				
	PDV	.03	.01	.28	3.70***	.08	13.70***
SA	(cont)	32.63	2.86				
	PDV	.12	.02	.43	6.01***	.19	36.10***

* $p<.05$, ** $p<.01$, *** $p<.001$

RUSB=Refusal of unwanted sexual behavior; SBP=Sexual behavior perception; SA=Sexual assertiveness; PDV=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3.3.2 폭력허용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의 폭력허용도가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폭력허용도가 전체 성적 자기주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0, p<.05$),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F=6.34, p<.05$). 폭력허용도가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5, p<.01$), 설명력은 6%로 나타났다($F=10.44, p<.01$).

Table 6. E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Violence Tolerance on Sexual Assertiveness (N=161)

Dependent	Independent	B	SE	β	t	Adj. R ²	F
RUSB	(cont)	29.60	.87				
	DVA	-.18	.06	-.25	-3.23**	.06	10.44**
SA	(cont)	5	1.24				
	DVA	2.57	.08	-.20	-2.52*	.04	6.34*

* $p<.05$, ** $p<.01$, *** $p<.001$

RUSB=Refusal of unwanted sexual behavior; DVA=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SA=Sexual assertiveness

3.4. 여대생의 폭력허용도의 매개 효과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폭력허용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한 Baron과 Kenny(1986)의 분석에 따랐다. Table 7에서와 같이 1단계에서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은 폭력허용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24, t=-3.09, p<.01$). 2단계에서 데이트폭력 인식은 성적 자기주장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beta=.43, t=6.01, p<.001$), 3단계에서 폭력허용도는 성적 자기주장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eta=-.20, t=-2.52, p<.05$). 4단계에서 폭력허용도가 투입되었을 때,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력($\beta=.41, t=5.55, p<.001$)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폭력허용도는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데이트폭력 인식)이 매개 변인(폭력허용도)을 통해 종속변인(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a=-.07, sa=.02, b=-.20, sb=.08$),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의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효과의 감소($\beta=.43 \rightarrow .41$)가 유의한 것(Sobel's T: $Z=2.03, p<.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폭력허용도는 매개 효과를 보였다.

Table 7.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validate mediating effect of violence tolerance of female college students (N=161)

Verification stage	B	SE	β	t	Adj, R ²	F
Step 1 (X→M)	23.80 -.07	3.05 .02		-3.09**	.06	9.56**
Step 2 (X→Y)	32.63 .12	2.86 .02	.43	6.01***	.19	36.10***
Step 3 (M→Y)	52.57 -.20	1.24 .08	-.20	-2.52*	.04	6.34*
Step 4 (X,M→Y)	35.10 -.11 .11	3.35 .08 .02	-.10 .41	-1.41 5.55***	.20	19.16***

* $p<.05$, ** $p<.01$, *** $p<.001$
M=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X=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Y= Sexual Assertiveness

4. 논의 및 결론

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중 데이트폭력은 대학생에

게도 흔치 않게 발생 될 수 있어 대학생들이 데이트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폭력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18]. 성적 자기주장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적 자율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원치 않는 성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분별력을 나타내는 성적 의사결정 기술이자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매개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성적 자기주장 프로그램의 확대·적용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여대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점수는 평균 4.25점으로 선행연구[2,19]에서의 평균점수 3.09점, 3.28점보다 높아 본 연구의 여대생은 데이트폭력 인식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사회적 문제로 관심이 증가되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도 해가 갈수록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선행연구[2,18]에서는 남녀 또는 남자 대학생이 연구 대상자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의 영향이 점수의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다만, 데이트폭력 인식의 하위요인 중 언어적 및 정서적 폭력에 대한 인식 점수는 신체적, 성적 및 사이버 폭력 인식 점수보다 낮았다. 이는 언어적 및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 심리적인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제기한다[8,20]. 실제로 남녀 대학생의 95% 이상이 이성 친구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해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20]. 이는 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공격의 전조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신체적, 성적 및 사이버 폭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심리적 폭력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보건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5,20].

성적 자기주장 점수도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3.2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하위요인 중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 점수와 성행동 인식점수는 각각 3.38점, 3.37점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나 성욕구 인정·표현 점수는 2.95점으로 다른 요인보다는 낮은 점수였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지영과 김성봉의 연

구[9]에서도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0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하위 요인 중 성욕구 인정·표현 점수가 낮았던 이유는 선행연구[9]의 결과를 통해 성별의 차이로 확인되어 여대생이 남자보다 성 욕구에 대한 인정이나 표현이 소극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의 유형을 파악한 연구[21]에서 각 유형별로 개별적 특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여러 유형 중 '쾌락지향적 협상형'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거절을 잘하고 성행동의 요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 이전에 첫 성적 자기주장이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의 개별적 특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이점 또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여대생에서 낮은 요인으로 확인되는 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데이트폭력 허용도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 1.86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의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는 강지영과 김성봉의 연구[9]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데이트폭력의 가해 경험이나 피해 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선행 연구[5]의 보고를 참고할 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모두 여대생들이었고 95% 이상이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을 하지 않는 집단이었기에 폭력허용도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추론된다. 다만,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행사'에 대한 데이트폭력 허용도 점수는 2.32점으로 평균 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임채영 등[7]의 연구에서 데이트 관계에서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언어적,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인식할수록 데이트폭력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교육과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비폭력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폭력 상황에 놓일 때 위협을 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다양한 각도에서 구축해야 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본다.

다음으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성적 자기주장 중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와 성행동 인식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데이트폭력 허용도와 성적 자기주장 중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2,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21]에 의하면 데이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폭력 중 성폭력이 가장 흔하며, 데이트 관계가 친밀할수록 처음 시도된 강제적인 성관계를 데이트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도한 보살핌이나 통제 행위를 극진한 사랑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 폭력을 경험하게 된 위험 요인이 되었다고 하였다[22]. 이는 친밀감을 이유로 왜곡되고 진화되는 다양한 데이트폭력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데이트폭력 예방에 기여 할 수 있는 성적 자기주장 실천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주요한 변수로 데이트폭력 인식이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19%이었다. 특히, 데이트폭력 인식은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와 성행동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행한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폭력 행동을 의미한다[8]. 이는 데이트 관계에서 누구나 폭력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어떤 행위가 의도된 폭력인지를 감별할 수 있는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높은 데이트폭력 인식은 폭력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7,8]. 또한, 데이트폭력 허용도도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중 원치 않는 성행동 거부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6%이었다. 이는 정춘아와 주용국[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이성 교제를 하는 동안에 남녀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인 폭력에 대한 수용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폭력을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비허용적 폭력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용적 폭력으로 구분된다[19].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여대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비허용적 폭력을 더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래서 원치 않는 성행동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거부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당연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데이트폭력 허용도 점수가 2.33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추론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데이트폭력 인식이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매개 효과를 검증할 때 예측 변인과 준거 변인 모두 부적인 기능을 내포하는 변수들이 사용되어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소영 등[23]은 데이트폭력 편견이 언어적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매개로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신소라와 김연수의 연구[24]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폭력허용도를 매개로 하여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의 경험이나 가해행위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인식이 데이트성폭력 허용도를 매개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와 부부의 음주가 부부 상호간의 폭력을 매개로 부부의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5]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매개 효과는 성폭력을 포함한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사이버 폭력을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표출하거나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트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들을 장려한다면 데이트폭력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측정변수를 검증하는데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였으나 중복 소재 일개 대학의 4개 학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 여대생의 성문화와 관련된 연구로서 의미 있는 주제이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낮추는 것이 성적 자기주장을 효과적인 대처전략으로 적용하는데 기여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 의미 있게 나타난 변수 결과들이 여대생에게 특화된 효과적인 대처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또는 중재프로그램으로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또는 여러 학과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장하고, 데이트폭력 인식, 성적 자기주장 및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대한 양적·질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혼합 방식의 연구 방법을 적용해봄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신체적, 성적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과 언어적 및 정서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REFERENCES

- [1] S. Y. Yu. (2000). *A study on the factor mediating the link between family violence victimization and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of college women : focusing on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Yeonsei University, Seoul.
- [2] C. A. Jung & Y. K. Joo. (2017).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assertiveness in dating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9(2), 405-418.
- [3] H. J. Kim & D. W. Kang. (2019). A study on the status date violence and its solu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a police officer-.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19(2), 179-211. DOI : 10.17926/kaolp.2019.19.2.179
- [4] Institute of Justice. (2021). *White paper on crime 2021*. (Online). <https://www.ioj.go.kr/hompage/information/DataAction.do?method=list&pblMatlDivCd=01&top=4&sub=1>
- [5] C. M. Rennison & S. Welchans. (2000). *Intimate partner violence*(No. NCJ 178247).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 S. Department of Justice.
- [6] M. A. Straus.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7] C. Y. Lim, S. Y. Jung & M. S. Lee.(2010). The effects of violence perception on dating vio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5(12), 147-179.
- [8] Y. J. Ha & M. K. Seo. (2014). A study of

-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0(4), 79-103.
- [9] J. Y. Kang & S. B. Kim. (2021). Impacts of college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s on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the mediation effect of sexual assertivenes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23(1), 79-103.
DOI : 10.15564/jeju.2021.03..23.1.79
- [10] E. S. Lee & H. S. Kang. (2014).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 48-56.
- [11] P. J. Morokoff, K. Quina, L. L. Harlow, L. Whitmire, D. M. Grimley, P. R. Gibson & G. J. Burkholder.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SAS)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DOI : 10.1037/0022-3514.73.4.790
- [12] H. L. Lee & Y. J. Han. (2021). The effect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role stereotype on sexual assertivenes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1), 454-460.
DOI : 10.5762/KAIS.2021.22.1.454
- [13] S. H. Choi.(2016).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women university students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4), 367-374.
DOI : 10.12934/jkpmhn.2016.25.4.367
- [14] H. Y. Jung & H. S. Min. (2013).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web-base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627-639.
DOI : 10.5977/jkasne.2013.19.4.627
- [15] J. A. Jeong, H. J. Jeon & S. M. Cheon.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10(2), 279-296.
- [16] H. M. Nam. (2003).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 [17] L. Foo & G. Margolin.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4), 351-377.
DOI : 10.1007/BF02110711
- [18] C. Buelna, E. C. Ulloa & M. D. Ulibarri. (2008). Sexual relationship power as a mediator between dating violence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8), 1338-1357.
DOI : 10.1177/0886260508322193
- [19] B. M. Kim. (201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male university students'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525-533.
- [20] K. H. Suh, Y. J. Kim, G. C. Jeong, S. A. Yang & B. Y. Kim. (2010). The appropriateness of patriarchal/asymmetry paradigm and gender-inclusive model of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4), 781-799.
DOI : 10.17315/kjhp.2010.15.4.013
- [21] H. J. Kim. (2015). Female adolescents' sexual assertiveness types: Q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1(4), 272-283.
DOI : 10.4069/kjwhn.2015.21.4.272
- [22] H. J. Woo, S. H. Jang & H. I. Kwon. (2017). A study on the overcoming experience of women suffering from dating violenc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2(3), 315-335.
DOI : 10.18205/kpa.2017.22.3.001
- [23] S. Y. Jung, C. Y. Lim & M. S. Lee. (2011). The effects of prejudice on dating viol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violence acceptability and relationship conflic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7(4), 127-151.
- [24] S. R. Shin & Y. S. Kim. (2016). How does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victimization affect victimization of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24(2), 5-32.
- [25] S. Woo & Y. Lee.(2020). mediating effec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use and relational satisfactio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nalysi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1), 75-86.

구 상 미 (Sang-Mee Koo)

[정회원]



- 2015년 8월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전공(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 E-Mail : ksm@u1.ac.kr

오 은 영 (Eun-Young Oh)

[정회원]



- 2015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8월 ~ 2021년 10월 현재: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치매, 인지기능, 인지훈련, 뇌졸중, 대학생, 핵심역량
- E-Mail : oey0443@hanmail.net